

광주시, 장마철 도로파임 특별 순찰

기동순찰 보수반 3개조 · 야간 응급보수반 등 운영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파임(포트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순찰 보수반 3개조와 야간 응급보수반을 24시간 운영한다. 기동순찰 보수반과 야간 응급보수반은 빗고물대로 · 무진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로폭원이 20m 이상(4차로 이상)인 378개 노선, 연장 597km 구간을 수시로 순

찰한다. 특히 경찰청과 협조해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도로파임이 있을 경우 보수할 계획이다.

또 도로파임, 물고임 등 도로이용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와 연계해 처리한다.

장마기간에는 포장 균열부보 많은 양의 빗물이 스며들어 차량통행에 의한 수압이 증대되면 약해진 부위의 아스팔트 포장층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심하면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휠이 부서지는 상황이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파임 등 신고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062-613-6796, 6797), 빗고물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김도기 기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미즈커뮤니케이션 · 한누리꽃담 · 하우스맘마 3곳 선정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3개소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 기업은 ▲(주)미즈커뮤니케이션 ▲(주)한누리꽃담 ▲하우스맘마 3곳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제 운영, 여성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또한 이들 기업은 여성인력을 채

용하는 등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식 이후에도 채용, 승진, 임금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및 근무환경에 양성평등 실현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서구는 올해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에 인센티브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인증현판 수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광산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시행

폭염 · 태풍 등 선제적 대응...10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

광산구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업분야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생명농업과장 총괄하에 4개 팀으로 구성,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상황실은 평시에 기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해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노후한 농업시설물 철거 또는 보강한다. /이동기 기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 농민, 농협과 공조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재해 발생 시 분야별로 팀을 현지에 보내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산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를 정비한다. /이동기 기자

'군복무 대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수산물 이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4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27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선발해 군 의무복무 기간 동안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신청 자격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에 따라 어

업인후계자로 선정됐거나 2024년 선정 예정자다. 현역병 인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소집 대상자 모두 수산계 학교 전공자에 한정해 배정된다. 신청은 7월31일까지 신분증 ·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 · 군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면 12월 말 병무청 최종 배정을 통해 2024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복무하게 된다.

복무 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소집 대상자는 23개월이다. /김도기 기자

나주시 '저류지 불법 증축' 해피니스골프장 고발

“원상회복 취할 것”...농업용수 부족 시 골프장 저류지 용수 공급기로 협의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불법으로 증축된 골프장 저류지 때문에 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한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전남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 골프장(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도면 송화리에 위치한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했다. 전체 면적은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논란은 해당 골프장이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을 위해 나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 선 시공한데서 비롯된다.

나주시는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초 허가 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의 골프장 저류지는 다도면 송화리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위치한다.

마을 주민들은 불법으로 증축된 저류지가 봉산제 상류에 조성되자 가뭄 시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나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봉산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 측과 봉산제 농업용수 수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봉산제 저수율이 낮아질 경우 저류지 용수를 공급

키로 했다.

하지만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로 낮아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골프장 측에 봉산제 저수율 30%이하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가 되더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골프장 측은 지난 16일 '봉산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저류지에 담수된 용수 중 오염원이 없는 용수에 한해 당초 조항을 초과해 공급하겠다'는 답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시에 전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골프



장 저류지 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 등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은 '물환경보전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2회 농약 잔류량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나주시조선주 기자

“적조·고수온 한 달 빨리 온다”...전남 대응태세 돌입

예방 중심 추진전략 수립 대응...방제 모의훈련 실시

전남도가 양식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적조 · 고수온이 올해는 한 달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최근 '2023년 적조 · 고수온 대응 종합대책'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 전략은 '예방 중심적 대응 체계 확립', '예찰 · 예보 기반시설 확충', '민 · 관 합동 현장 대응', '피해복구 · 경영 안정 지원', '제도개선 · 기술보급' 등이다.

지난 26일엔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적조 · 고수온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지원 방제장비 구축, 예찰 · 예보 기반시설 확충, 민 · 관 합동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오는 7월12일에는 완도 신지면 해상가두리 양식장 밀집해역에서 적조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완도군 · 해양경찰 · 어업인 등이 선박 26척을 동원해 참여하며 실제 대응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은 올해는 평년 대비 수온이 0.5~1도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은 7월 초순, 적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7월 하순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8월26일 여수 돌산도 ·고흥 외나로도 해역에 적조주의보 발령이 이어 30일에는 경보로 강화돼 피해 발생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인력 435명, 장비 329대를 동원해 여수 ·완도 해역에 황토 1964t을 살포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 호 기자

광주노동청 · 교육청,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지원 협약

청소년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강화 업무협약 체결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청소년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연계, 자립 기반

과 취업 성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참여자를 발굴하는 데 힘을 보탠다. 또 교내 일 경험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주 기자

노동청은 참여자별 전문상담사를 지정해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취업 상담 · 직업훈련 ·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 ▲가족수당(최대 월 40만 원) 등 생계 지원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또 광주시 복지 · 자활 담당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부터 긴급 복지, 심리, 건강 상담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8월 17일까지 접수...편견해소 · 응원 · 예방실천 등 주제

광주시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앞두고 치매극복 주간행사로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28일부터 8월17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병원(광역치매센터)이 주관하는 '2023 광주시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응원, 치매예방 실천을 주제로 8월 도화지에 채색 재료 제한없이 그리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6점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고학년 · 저학년 각 1명씩(상품권 20만원) ▲우수상 고학년 · 저학년 각 2명씩(상품권 10만원) ▲장려상 고학년 · 저학년 각 5명씩(상품권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선작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전시회와 홍보물렌즈 제작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9월5일 개별 연락 또는 광주광역시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며, 9월20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작품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는 광주시 광



역치매센터 교육홍보팀(062-226-2183)으로 하면 된다.

/현형안 기자

광주시교육청 '킬러문항' 홍보 입시학원 잡아낸다

광주시교육청이 사교육 경감을 위해 2024수능 대비 모의평가 문답지를 보급하고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불법 홍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제도 구축'을 위해 수능 문답지를 제작하는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을 중심으로 모의평가를 분석해 2024수능 출제 방향을 예측해 집중 지도한다.

또 광주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이 출제 경향에 맞춰 수능 대비 모의평가 문답지를 개발해 8월과 10월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형 입시 학원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수능 킬러문항 대비' '수능 출제 위원 이력' 등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정 대학 합격 현황, 대학별 진학결과, 모의평가 및 수능성적 비교 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도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진로 · 진학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광주진로진학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수험생을 위한 수시 · 정시 대비 집중 대입상담 주간을 7월, 8월, 12월 운영하고 수시 대비 맞춤형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10월에 호남권, 11월에 수도권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순천국유림,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 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 ·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